2017명 어르신 나눔 대축제 'START'

서울노인복지센터, 4월 5일~5월 10일 '나눔의 등축제'

2002년 시작돼 올해 15주년 맞아
'선배시민 2017명 만들다!' 슬로건
한 달간 센터 곳곳서 나눔 캠페인
상설모금대 운영 · 보이는 라디오 등



4월 5일 개최된 '2017 나눔의 등축제' 발대식에서 프로그램 홍보에 나선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들.

"좋은 일에 선배시민들이 먼저 나서야죠. 많은 동참 바랍니다!"(서울노인복지센터 이용 조용수 어르신, 90세)

반가운 봄비가 내리던 식목일, 봉축을 앞둔 불교계 산하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환한 나눔의 등불이 밝게 타올랐다. 2002년 첫 발을 내딛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나눔의 등축제'가 올해 15주년을 맞이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찾아온 것.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2017 나눔의 등축제'를 4월 5일~5월 10일 한 달간 진행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02년을 시작으로 매년 어르신 복지 기금 마련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의 등축제'를 열고 있다. 올해는 '더 이상 한 복지관, 나눔을 실천하는 선배시민 2017명이 만들다!'가 슬로건으로, 나눔의 동참하는 어르신들 2017명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축제가 열리는 한 달간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33개 동아리 및 16개 탑골문화예술학교 교육반 소속 어르신들은 조를 구성해 센터 곳곳에서 나눔 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

1 · 2층에 마련된 상설모금대에는 발대식이 열린 4월 5일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들었다. 첫날 캠페인에 참여한 표민홍(79) 씨는 "최근 어지러운 시국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이 참 심란했다. 이번 등축제를 기점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며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돼 어르신 복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웃어보였다.

탑골미술관에선 어르신 작품 나눔 전시회 '봄에 핀 나눔 꽃'도 열린다. 어르신 작가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기증한 서예, 서화, 유화, 아크릴화 등 작품 40여점이 전시되며, 작품들은 소정의 금액으로 판매돼 노인복지기금에 쓰인다. 전시와 함께 △체험공방 '컵받침 만들기'(4월 13일) △어르신 작품 나눔 이벤트(4월 17~21일) △프리마켓 '김영감의 꿀단지'(4월 20~22일) 등 이색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이밖에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은 △먹거리 장터 '마음을 전하는 전부치기'(축제 기간 중, 3층 게이트볼장) △보이는 라디오 '고맙습니다 선배시민'(4월 중, 2층 로비) △어르신 나눔 작품 바자회 '봄에 핀 나눔 꽃'(4월 6일~5월 3일, 탑골미술관) △쌀 모으기 '사랑의 쌀독'(수시 진행, 1층) △어르신 상담센터 합동 캠페인(4월 26일, 탑골공원) △등축제 성과발표회(5월 10일, 3층 TOP작은공연장) 등이다.

관장 희유 스님은 "15년간 센터 어르신들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발대식이 열리는 오늘 반가운 봄비가 내려 올해 축제는 더욱 잘 치러질 것 같다. 어르신 모두 즐거운 축제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문금 어르신 모금단 대표는 "목표인원인 2017명 이상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올해도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엄홍길휴먼재단 네팔 14차 휴먼스쿨 첫 삽

3월 29일 둘리켈 지역서 기공식



엄홍길휴먼재단(이사장 이재후)은 3월 29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둘리켈에서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 홍옥선 사무처장, 현지 학교장, 학생, 마을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둘리켈 휴먼스쿨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현지 학교명은 쉬리 아자드 고등학교(Shree Ajad higher secondary school)로 학생 수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720여 명에 달한다. 2015년 네팔 대지진 피해로 인하여 전체 26개 교실 중 17개 교실이 제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가건물에서 겨우 학업을 하는 등 신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14차 둘리켈 휴먼스쿨 건립에는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 스님이 건립기금을 후원하기로 했다. 엄홍길휴먼재단은 현대식 건물로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서는 엄홍길 상임이사는 네팔 학생들에게 "제2의 고향인 네팔에서 휴먼스쿨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 삶의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엄홍길휴먼재단은 지난 2008년 5월 설립된 이후 16개 휴먼스쿨 건립을 목표로 2017년 3월 현재 네팔에 12개의 휴먼스쿨을 준공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韓美청소년 미국서 불교문화로 뭉치자

조계종 국제전법단 4월 20일까지 제7차 연수 모집

조계종 국제전법단(단장 계성)과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정범)는 4월 20일까지 제7차 한미 청소년 불교문화연수단을 모집한다.

8월 4일부터 8월15일까지 진행되는 연수는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 맨해튼, 코네티컷, 보스턴, 워싱턴 등을 돌아보며 하버드대학교, 스미소니언박물관 등 유수한 대학과 기관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여정 동안 대학생 멘토들과 정범 스님(LA), 성향 스님(뉴욕) 등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이 함께하며 학생들을 돕는다.

이번 연수에서는 미동부 해외특별교구 소속 사찰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미청소년 연합캠프도 3박 4일간 뉴욕 불광선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그룹 토론,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하며 우애를 쌓는 소중한 기회도 가지게 된다. 참가비는 350만원으로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홈페이지(www.kbin.or.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kbin8985@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070)7769-8985 노덕현 기자



부처님 품안에서 백년해로를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와 배려포럼(공동대표 도법)은 3월 30일 하얏트 호텔에서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이날 합동결혼식에는 3쌍의 북한이탈주민이 부부의 연을 맺었다. 주례를 맡은 지홍 스님은 "한국 땅에서의 신랑과 신부로 맺어진 인연은 매우 소중하다"며 백년해로를 축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 중간관리자 연수 개최

4월 13일부터 1박 2일간…하반기엔 최고관리자 연수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4월 13일 1박 2일 동안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17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중간관리자 연수'를 개최한다.

사회복지시설 중간관리자들이 불교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갖추고, 불교사회경제 사상 함양과 조직문화 구축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이번 연수에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선임 팀장 및 과장급 100여명이 참여한다.

"다양한 교육 · 연수 사업 추진을 통해 재단과 시설이 함께하는 불교사회복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재단은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성찰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 약 2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은 매년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교적 가치관 함양 및 사회복지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직급별 교육 · 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 신규입사자 연수와 4월 중간관리자 연수를 시작으로 6월에는 최고위과정(최고관리자)을, 하반기에는 템플스테이와 연계하여 불교복지 종사자의 행복증진을 위한 '(가칭) 행복충전 프로젝트'와 어린이집 종사자의 '보육교사 연수', 사회복지시설 '실무책임자 보수교육', '전체종사자 교육' 등 불교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티벳 수행지도자 라마글렌 법석 열린다

아산 대안사서 5월 3일 개최 예정

아산 대안사(주지 덕진)는 5월 3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티벳 수행지도자 라마글렌 초청 법석을 마련한다.

라마글렌 법사는 1949년 캐나다 출신으로 1972년부터 1984년까지 티벳 4대 종파 스승 35명으로부터 불교교학과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법사는 다람살라에서 20년간 달라이라마와 그의 두분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특히 딴뜨라를 전수받았다. 라마글렌은 해마다 6개월간 여러 나라를 다니며 티벳 수행법을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4월 2일 서울 법련사에서의 '약사여래 수행', 4월 8일 아산 대안사에서의 '따라 관정식', 4월 10일 벽송사에서의 '밀레라파 치유요가 안거'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서울 법련사는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티벳불교 수행차제 법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Yeon Deung Hoe 燃燈會
Kore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22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불기2561(2017)년
4. 28~30

연등회

연등행렬
'모두가 함께 빛나는 연등행렬,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저녁이 되면 종로거리의 관람석에는 전세계에서 온 수만명의 관람객이 모여듭니다. 동자, 동녀, 코끼리, 사자, 나비, 선녀, 전설 속 주인공들이 우리의 추억을 되살려줍니다.
장소 종로거리 (동대문 → 조계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 종로3가역 / 종로5가역

전통문화마당
'오감만족, 다양한 체험의 장'이 열립니다!'
백여개의 체험부스가 설치된 조계사 앞 거리는 나눔의 큰 잔치가 펼쳐집니다. 백희잡기의 전통을 계승한 전통문화마당은 한 곳에서 다양한 체험과 공연 그리고 우리의 멋과 맛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축제입니다.
장소 조계사 앞 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 3호선 안국역

행사 및 관람 안내

행사명	일시	장소
전통등 전시회	4. 28(금) ~ 5. 7(일)	조계사, 봉은사, 청계천
어울림 마당	4. 29(토) 오후 4:30~6:00	동국대학교 운동장
연등 행렬	4. 29(토) 오후 7:00~9:30	동국대학교 ~ 종로 ~ 조계사
회향 한마당	4. 29(토) 오후 9:30~11:00	종각 사거리
전통 문화마당	4. 30(일) 낮 12:00~7:00	조계사 앞길
공연 마당	4. 30(일) 낮 12:00~6:00	조계사 앞길 공연무대
연등 놀이	4. 30(일) 오후 7:00~9:00	인사동 ~ 조계사 앞길
봉축 법요식 관등	5. 03(수) 오전 10:00 오후 7:00	조계사 및 전국의 사찰

www.연등회.kr